

# 책으로 세상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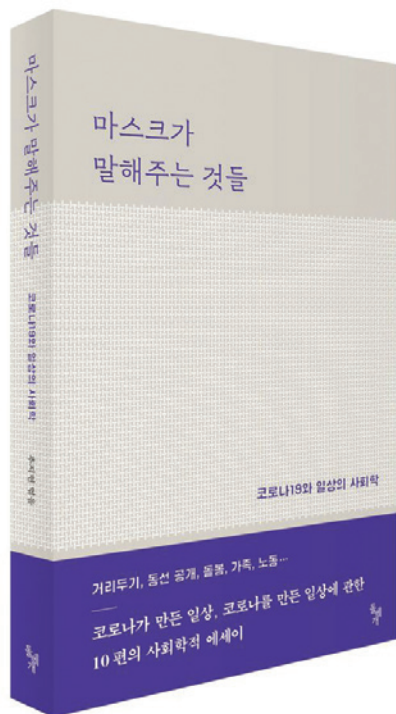
## 코로나19 덕분에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

###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2020년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지배한 해였다. 수많은 의료진이 최전선에서 몸을 던졌고,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사투를 벌였다. ‘언젠간 끝나겠지’라는 희망과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에 대한 절망이 교차했다. 그 힘든 시간과 과정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물론 전염병과의 싸움은 해를 넘겨도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 및 시민의 노력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계획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큼 과거를 성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보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없던 해로 생각하자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 역시 그런 생각이 든 적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위안으로 삼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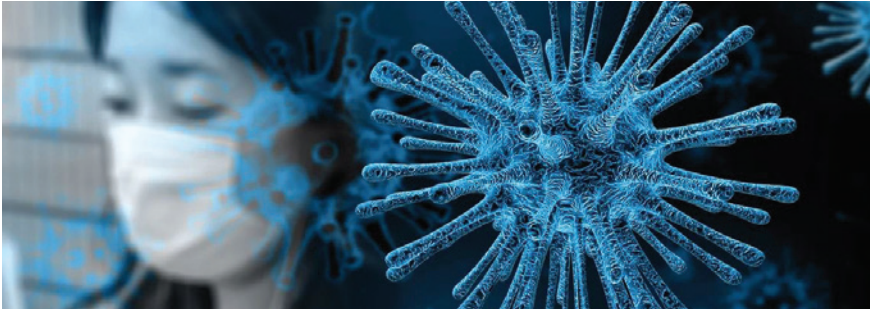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추지현 외 9명 지  
/ 출처 : YES24

쑥쑥하고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필요하다.

책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은 이런 기억들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는 질병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이 책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가족, 노동, 기술, 정치 등 각 주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다. 다만 거시적인 미래 담론이나 위기관리 전략 등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싶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부분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고 있다.

먼저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주제부터 다뤄보자. 바로 제목에서도 언급된 ‘마스크’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코로나19 / 출처 : 픽사베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 출처 : 프리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김재형 선임연구원은 마스크가 일종의 ‘공공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원래 마스크는 개인이 사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고, 전국에서 마스크 품절 대란이 발생했다. 결국 국가가 공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마스크는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마스크 분배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생겨났다.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이었다. 모두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집단들이다. 김 연구원은 공공재가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배제의 정치를 발생시켰고, 이는 한국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던 인종주의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성은 언제나 배제의 양면성을 안고 있는데, 특히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김 연구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마스크 사태를 통해 상기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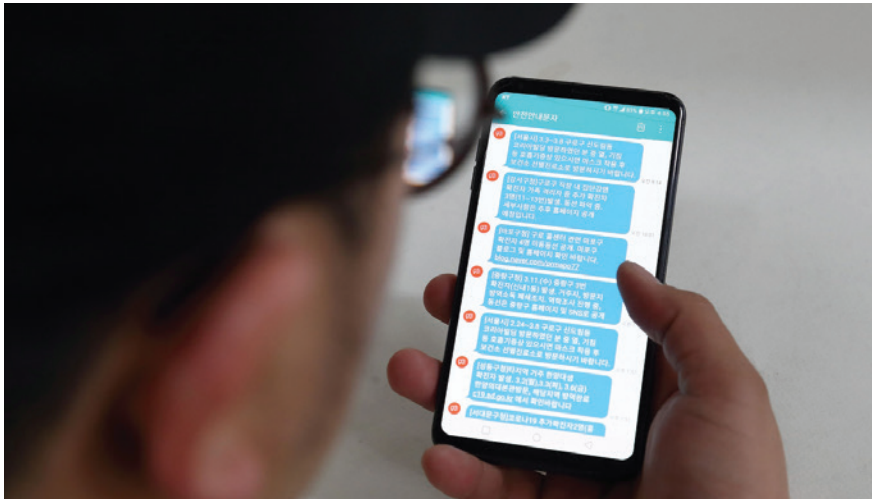
눈썰미 있는 독자들은 이 마스크 에피소드에서 무엇이 키워드인지 파악했을 것 같다. 바로 ‘사회적 약자’이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노동자,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축적된 소외 집단의 고통이 코로나19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이에 대해 책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한다.



코로나19 시대, 마스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약자들의 삶

‘동선 공개’는 앞서 논의한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로 나타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전염병 유행 초기 한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접촉자를 추적해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개인의 인적 정보가 지나치게 드러나면서 사생활이 폭로되는 부작용도 심각했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조롱이나 비난, 혐오도 극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생활에 대한 평가와 비판의 기준이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데 있다. 사회학을 연구한 유현미 저자는 상대



코로나19 유행 초기 동선 공개는 '신상' 공개가 되어버렸다 / 출처 : 시사IN

**책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은 사회, 가족, 노동, 기술, 정치 등 각 주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다.**

적으로 약자의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비판한다. 그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서 '유흥업소 직원'이 명시된 사례를 그 근거로 든다. 정확히 어떤 유흥업소인지와 상관없이 단지 '유흥업소'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그 확진자는 대중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정부는 동선의 투명한 공개가 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다. 저자는 시민 간의 연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타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더 키웠다고 지

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난 9월호 필자가 쓴 <투명사회> 서평이 떠오른다. 투명사회의 저자 한병철은 '투명성'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보다 의심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동선 공개로 인한 현 상황은 그의 예측이 맞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으킨 거센 파도는 노동 현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콜센터, 쿠팡 등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일하는 곳은 더욱 취약했다. 노동 운동가인 공성식 저자는 지난 3월 집단감염이 터졌던 콜센터 직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콜센터는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 구조였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온종일 전자 감시체제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 이는 원청업체가 고용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동시에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양대 핵심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밀집된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공 씨는 계약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집단감염 사태가 얼마든지 더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실 콜센터 직원이나 쿠팡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우리는 이들 덕분에 비대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고, 집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세간에서는 '뉴노멀'을 외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뉴노멀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노동자들을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저자가 제기한 노동자의 문제는 그 함의가 매우 크다.





이 책은 여성 인권이나 젠더 문제를 연구한 저자들이 여럿 참여했다. 그 때문에 책 내용 곳곳에서 코로나19와 여성의 삶을 연결 지은 대목을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추지현 서울대 교수, 오하나 시립대 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확산하면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더욱 가중된 실태를 지적한다. 기존에도 이미 여성은 남성보다 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엄마들로 하여금 바깥 사회와 고립된 채 육아에만 매진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었다. 이처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본다는 관점은 흥미롭다. 다만 일부 이론이나 설명에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었는데, 아마 책 지면이 여유로웠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코로나19를 여성 문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을 따로 발간한다면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 결국은 민주주의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반인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약자들의 권리는 더욱 위축되기 십상이다. 사회학을 연구한 장진범 저자는 국가는 긴급 상황이 생기면 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목소리는 커지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통해 권력의 전횡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전염병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 출처 : DBpia Report R

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국가가 온전히 전권을 떠맡으면 무분별한 힘을 휘두르게 되고,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방역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때 민주적인 제약이 필요한 곳에만 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끝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훈련과 덕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래야 평상시에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시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제언으로 책은 귀결된다. 마치 한편의 사회학 교양서를 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글 서두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 책의 부제는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이다. 말 그대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잡

아먹을 만큼 파급력이 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확진자 수에 매달리며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네, 성공했네’하는 뉴스와 시민들의 의견이 온종일 오갔다. 오늘 나온 확진자 수에 놀라며 눈을 뜨고, 내일 나올 확진자 수를 걱정하며 눈을 감는 하루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에도 택배 노동자들은 우리가 주문한 많은 물량 때문에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이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다.

물론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논의를 펼치다 보니, 일부 편향되거나 과장된 진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약간의 수사적 표현 정도로 고려한다면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

전염병으로 인한 반복된 일상에 지쳐가는 독자들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매일 보던 확진자 숫자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웃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잠재된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될 것이다. 📖